

진정한 성공으로 초대하는

월드와이드신문

2021 12

월드와이드 신문 / 발행인 : 박인용 / 구독문의 032) 501-9686,7 / 도서출판 월드와이드

그저 감사한 생각을 하늘로 올려보내는 것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이다 -갯필드 레싱



미국주식, 어느 종목에 투자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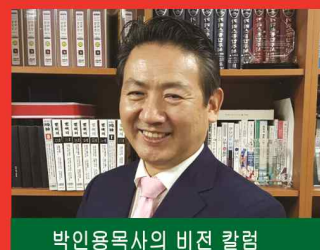
확대되는 한류 열풍



늘어가는 대한민국



감기와 독감의 차이는



박인용목사의 비전 칼럼



프레임에서 벗어나자

삶은 끝없는 프레임 걸기 전쟁이다. 특히 정치에서는 프레임 전쟁이 치열하다. 일반인의 생각에 특정한 내용의 프레임을 짜서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면 사고의 개념이 좀처럼 벗어나질 못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 프레임 전략이다. 그러면 상대방이 씌운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프레임에 갇히다

우리는 대부분 특정 프레임을 통해 세상을 보고 생각하고, 그것이 정답이라고 믿으며 살아간다.

조지 레이코프가 발표한 '프레임 이론'에서 프레임이란 현대인들이 정치·사회적 의제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본질과 의미, 사건과 사실 사이의 관계를 정하는 직관적 틀을 뜻한다. 심리학에서 '프레임'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의미하며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뜻한다. 사람들에 대한 고정관념 등이 모두 여기에 속하고 생각을 어떻게 프레임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진다.

이런 프레임 때문에 같은 문제나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된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같은 사건을 두고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라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던 다른 사람들의 반응도 프레임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이다.

프레임은 자동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자기 자신은 균형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도 자기도 모르게 세상을 바라보는 사고라거나 관점을 보는 틀이 존재한다. 그래서 완전한 객관적이란 건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얘기를 하고 이해를 하던 자기의 프레임으로 이해를 하게 된다.

프레임이 위험한 이유

프레임이 위험한 이유는 대상에 대해 낙인을 찍기 때문이다. 낙인은 쇠붙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찍는 도장으로 목재나 기구, 건축, 죄인의 몸에 찍었다. 사람에게 낙인이 찍히면 다시 씻기 어려운 불명예스럽고 욕된 판정이나 평판을 받게 된다. 프레임은 사

실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사실의 진단을 위해 가공된 용어에 큰 비중을 둔다. 과거 중세시대에 어떤 여인에게 마녀라는 딱지가 붙으면 타인들은 그를 달리 대하게 되고 마침내 마녀사냥으로 몰아가 화형까지 시키게 되었다. 그만큼 프레임은 사람들을 현혹하게 되므로 정치권에서는 소위 사건의 본질보다 상대방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붙이는 전쟁에 열을 올리게 되는 것이다.

프레임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프레임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는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의 책에서 '세금'을 예로 들었다.

'세금'이라는 단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하지만 세금이라는 단어를 듣는 사람 중에 긍정 혹은 부정적인 생각을 했다면, 그것은 이미 자신의 생각 속에 있는 세금이라는 단어에 대한 프레임이 형성된 것이다. 다시 '세금'에 '구제'라는 단어가 붙으면?

구제는 누군가의 불행이나 고통을 도와주거나 제도하는 것을 의미하며 구원과 비슷한 말로 쓰인다.

즉, 구제라는 단어 안에는 고통이 존재하는 것이며, 세금 구제는 과세를 통한 고통을 주는 부정적인 생각이 씌어지게 된다. 이처럼 프레임은 자신의 세계관에 부합하는 언어를 취합하는 것이다. 이것이 프레임 형성의 핵심이다.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법

정치비평 도서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는 만약 언쟁 중 '코끼리'가 주제가 되어 있고, 나는 코끼리에 대한 주제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때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코끼리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코끼리가 하나의 프레임이 되어서 모든 담론이 코끼리를 중심으로 찬성, 반대의 입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이 원하는 얘기는 할 수 없다. 이때는 코끼리를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고 다른 주제를 꺼내야 한다. 이것이 프레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1992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였고 재선을 노리고 있었다. 그는 재임 기간 중에 걸프전을 이끌며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은 미국뿐이라는 것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고, 국민의 지지율이 90%에 이를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전쟁은 언제나 국민들을 보수화시키는 경향이 있고 보수당인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부시는 재선에 성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버지 부시의 경쟁자는 아칸소 주지사 출신인 빌 클린턴이었다. 그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라는 구호로 부시행정부가 놓치고 있었던 경제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재선을 노리던 부시를 누르고 미국의 42대 대통령이 되었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는 미국의 선거 역사상 가장 멋진 구호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으며, 보수가 만들어 놓은 프레임을 진보의 프레임으로 바꾸어 놓은 성공적인 정치 캠페인으로 기억되고 있다.

상대방이 제기한 이슈에 가타부타 따지고, 그 공방을 주거나 받거나를 계속하게 되면 이미 그들의 프레임에 들어가 버리게 된다. 그러면 그 프레임을 제기한 쪽이 이기는 것이다. 어떤 내용의 공방이 오고 가든 이슈를 제기한 쪽이 그 공방에서 참패하지 않는 한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은 그 이슈에 관심이 쏠리게 된다. 싸움의 양상이 어떻게 되든 상대방이 던진 주제의 범주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집권 10년, 북한은 어떤 모습인가

북한 최고 지도자를 놓고 틈만 나면 유고설, 대역설이 나오는 근본 원인은 북한의 불투명한 체제 때문이다. 내부에서의 정보 유통이 극도로 제한된 데다 국내 사정이 외부로도 알려지지 않는 밀봉 체제이니 소문이 돌아도 이를 쉽게 확인할 길이 없다. 가장 최근에 이런 루머를 촉발한 것이 바로 미국 티블로이드 주간지 글로브의 보도였다. 요지는 '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부장대리의 쿠데타로 김 위원장이 사망했고, 요즘 TV에 나오는 인물은 대역'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해외 언론을 통해 제

기된 이른바 '김정은 대역설'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집권 10년 차를 맞이한 김정은 위원장은 김일성과 김정일 그늘에서 벗어나 정치적 홀로서기에 나서고 있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특히 북한 매체들이 최근 김 위원장에게 처음으로 '수령'이라는 호칭을 붙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령'은 북한 정권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갖는 직위다. 김일성 주석에게만 허락됐던 칭호로 김정일도 생전에 사용하지 못했던 존칭이다.

'김정은주의'는 김일성과 김정일에게서 정통성을

찾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해 정통성을 확립할 수 있다고 밝히는 것이다. 북한이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하는 배경에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정통성을 인위적으로 강화하지 않으면 안될 절실한 필요가 존재함을 의미하기도 하다. 70년 넘게 진행돼온 만성적인 미국의 제재·봉쇄에 더해 최근에는 코로나19와 자연 재해로 인한 경제·사회적 위기가 북한 체제를 위협하고 있다. 이런 상황들이 김정은 중심의 단결 필요성을 더욱 제고시키고 있으며, 북한 지도부의 위기감이 밀바탕에 깔려 있다는 뜻이다.

‘미래의 쇼크’를 어떻게 미래의 희망을 바꿀 것인가

누구도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란 알 수 없다는 것, 그것만이 확실하다고 예측합니다. 그러나 현재와 과거를 돌아본 사람들은 다가올 미래의 방향은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예측에는 상상 못할 변수가 있기에 미래는 ‘불확실’한 것이 사실입니다. 변화를 무시하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는 것도 안정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전통을 버리고 변화를 선택해서 시대의 흐름에 편승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둘 다 미래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미래 변화에 대한 가장 큰 내용은 바로 ‘초 연결’, ‘초 지능’, ‘초 융합’시대로 간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은 초연결과 초 지능을 넘어서 초 융합의 형태로 넘어가고 있다고 진단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바로 이런 순간적으로 가능한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자유민주주의가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긍정이든 부정이든 직접민주주의의 구조에 돌풍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래 시대에 혁신적 반도체가 가져다 줄 인공지능의 ‘딥 러닝’의 세계는 상상이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른바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는 ‘초연결사회’의 도래로 최첨단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연결되고 업무 또는 사람간 소통이 더욱 편리해질 것에 대한 기대가 가득합니다. 접속과 공유를 기반으로 하는 ‘공유경제, 공유사회’는 빈부차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떠오르는 듯합니다. ‘소유’라는 개념이 중심이 되었던, 기존 사회경제의 기본질서가 점차 ‘접속’과 ‘공유’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태세전환’ 시대로 초대됩니다.

그런데 이른바 4차산업혁명으로 부르는 ‘융합의 시대’가 몰고올 폭풍을 그저 ‘기술이 가져다 준 낙원’으로 부풀 기대만 가져도 될까요?

렌탈, 카셰어링 등 굳이 물건을 소유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나 편리하게 빌려서 사용 가능한 시대라는 겁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도로를 달리고 자동택배 드론이 하늘을 날아 내 입 안까지 먹여주는 시대가 될 그림을 보여줍니다.

이런 긍정적인 결과가 없다면 인류는 경쟁적으로 4차산업혁명에 매달릴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상 쉽게 간과할 수 없는 약점이 노출되는 것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혁신의 자리’에서 변화 과정상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갈등 발생, 또는

가치관의 혼란으로 혼동의 시기를 겪을 것입니다. 자동화, 산업구조 개편 등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로 인한 변화거부 세력이 일어날 겁니다. 이로 인해 소위 ‘신러다이트’운동 등, 이른바 고용불안 등 사회계층별 갈등의 폭발도 감내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을 신뢰하게 되면서 깊은 인간적 자기 성찰을 필요로 하는 인문학적 지식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런 인문학적 자산이 감소함으로 정서의 빈곤, 인간적 터치 없는 기계적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정작 기술을 운영할 인간은 깊은 소외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인공지능을 의존함으로 인한 기억력, 인지능력 등 하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인지능력과 자동센서가 대신해주는 시대로의 진입은 ‘인류의 화석화’, ‘감각 지능화’, ‘인격적 불균형화로 인한 좀비화’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부작용을 결코 무시해선 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 너무 지나친 비관론이라고 바로 고개를 흔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치 스마트폰에서 자동으로 입력된 전화번호를 사용하던 사람이, 스마트 폰이 없을 시 번호 자체를 가족이라도 기억해서 전화하기 힘든 경우를 봅니다. 이것은 단적인 예이지만 결코 미래가 장미빛으로 바뀔 수만 없음을 보여주는 삶의 습격입니다. 여기에 해킹, 사생활 침해 등의 위협으로 정신적 공황장애를 겪는 사람들이 많아 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낙관적일 수만은 없는 많은 ‘불확실성’의 요인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미래는 판타지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쇼크’로 다가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도 우리는 실시간으로 쉽게 전 세계의 지식에 접속할 수 있는 도구를 주머니에 갖고 다닙니다.

수십 년 전에는 스마트폰보다 못한 컴퓨터로 우주선을 달에 쏘아 올린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닌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스마트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스티브잡스, 백남준, 레오나르도 등 창의적인 도전을 통하여 융합적 예술과 과학을 이루어 새로운 인류문화에 이름 가치를 창출한 것을 압니다.

미래로 나가는 것은 정-반-합적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역사는 발전합니다. 그런데 그 발전이 긍정적이나 부정적이나는 깊은 생각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사회는 4차 산업의 과정에 살고 있고 4차 산업

의 핵심인 인간 중심의 ‘융합화 된 생활’에 접어들고 있음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자율주행, 핀테크, 빅데이터, 사물인터넷이 4차 산업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의 핵심은 첨단기술 만이 아닌 인간 중심의 융합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인간중심’이라는 혁명에서 바로 그 인간이 소외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소외될 수 있는 길로 가고 있다는 기막힌 현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찰스 파텔, 버니 트릴링과 같은 교육전문가들은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 네 가지를 4C로 요약합니다. 바로 창의력, 소통 능력, 비판적 사고, 협업 능력이라는 소프트 스킬입니다. 네가지 애기의 틈새를 보면 결국 ‘인간이란 누구인가’를 깊이 성찰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창의력은 인간 내면의 ‘브레인스토밍’에서 나옵니다. 소통능력은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서 나옵니다. 비판적 사고는 균형있는 시각에서 나옵니다. 협업능력은 자기의 입장과 달란트와 한계를 정확히 아는 데서 나옵니다. 바로 이런 사회에 미래를 대비 붙잡아야 할 근본은 ‘인간이란 누구인가’ 바로 그분이 주시는 ‘다림줄’을 붙잡아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이부분은 믿음의 영역이지만 가장 불확실한 것을 확인하는 신화의 시대에 사실 가장 근본적 진리에 모험을 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35억명 신자 가운데 대다수가 경험한 검증된 진리입니다. 그분의 터치와 그분과의 접속이 생명입니다. 절대지식이 아니라 절대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좀비화 되어가는 미래의 쇼크에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할 영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상대적 비교감에 위축되어가는 세상에서 그분의 은총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이 되어야 무서운 미래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선을 다하는 결단’이 있는 오늘’은 바로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노력이고 준비가 될 것입니다. 그 최선은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원리, 즉 진리를 붙잡는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 ‘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내로남불’의 불공정을 혁파하라

공정이 시대의 화두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사회 계층 간의 대립과 불평등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공정이라는 단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데, 지금 이 시대에 한국 사회에서 공정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특히 20~30대가 생각하는 ‘공정’은 어떤 것인가.

불공정에 민감한 MZ세대

198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00년대 초반 출생한 ‘Z 세대’를 합친 MZ세대는 최근 사회문화는 물론 정치 지형에까지 충격파를 던지며 사회의 중심에 섰다. 공정은 MZ세대를 대표하는 핵심 가치다.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썸트렌드’에 따르면 지난해 SNS와 포털사이트 등에서 ‘공정’이 언급된 횟수는 총 157만 1036건에 달한다. 2018년(86만4442건)보다 80% 이상 급증한 수치로, 공정을 논하는 게시물이 하루 평균 4300여 건 올라온다는 의미다. SNS의 주된 사용자인 MZ세대에게 공정이 하나의 화두로 자리 잡았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사이기도 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것’이라는 말에 많은 청년들은 열광했지만, 실제로는 불공정하고 불평등하게 기회가 분배되는 일련의 상황을 접하면서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MZ세대에게 공정이 화두로 자리잡게 되었다.

청년들이 불공정을 호소했던 사건으로는 먼저 평창 올림픽 아이스하키팀 남북 단일팀과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는 국가의 이익이라는 이유로 수많은 노력을 간과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피땀 흘려 훈련하는 선수들의 노력과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거나 자격증을 따는 등 취업 준비생들의 십 수년간 노력을 무시했다고 느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약 1900명의 보안검색요원을 정규직으로 직고용하기로 한 결정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취직하기 위해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의 “자리를 뺏는” 것으로 “평등이 아니라 역차별”이라고 여겼다. 인천국제공항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좋지만 정규직을 준비하기 위해 노력하는 응시자들도 그에 준하는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2030이 바라는 공정이란?

미국 철학자 존 롤스(1921~2002)는 반세기 동안 ‘정의란’ 주제를 연구하는데 매진한 학자다. 롤스는 정의를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정한 규칙을 만드는 절차로 봤다. 피자 한 판을 공정하게 나눠 정의에 다다르기 위해선 피자 냄새조차 맡을 수 없는 구성원을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표현을 빌어 오면 “규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할 수조차 없는 최소수혜자에게 최대한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최소수혜자 최우선 배려’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를 구상한다.

MZ세대가 바라는 공정은 ‘기회의 평등’과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는 것’ 두 가지를 제시한다. MZ세대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쟁은 공정성을 전제로 한다. 즉, 자신의 노력과 상관없이 불공정을 일삼는 경우나 무임승차자에게 분노한다.

다만 이전 세대와의 차이가 있다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다. 이전에는 사내 정치로 인한 인사이동이나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조직의 생리를 빨리 학습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또한 업무 분배와 보상 수준에 있어 불만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현재의 노력을 인정해주고 자신의 커리어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 묵묵히 견디며 업무 역량과 평판을 쌓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그러나 공정성에 잣대가 높은 밀레니얼 구성원은 목소리를 내는 편이다.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라고 여겨질 때는 조직을 떠나기도 한다. 이는 조직의 시스템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하는 단계가 왔다는 뜻이다. 그간 경영진이 주는 대로 성과급을 받았던 직원들이 이제는 회사에 성과급을 책정하는 기준이 뭐냐고 질문을 던지며 MZ세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MZ세대가 대학 입시를 치를 때에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도입돼 있었다. 정량적이기 보다는 정성적 평가를 지향하는 학종에서 때로는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들은 늘 공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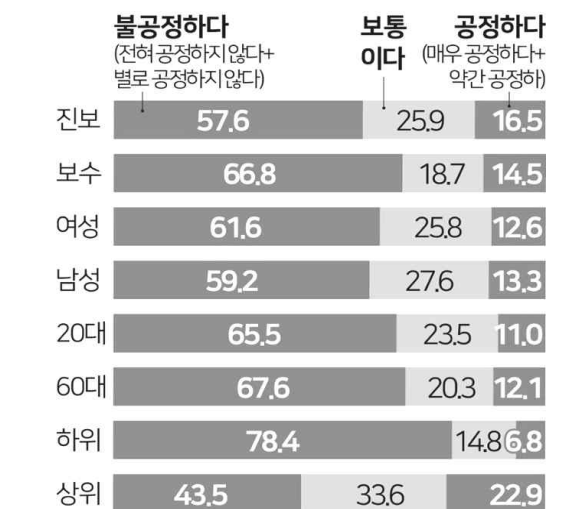
에 대한 갈증을 느껴 왔다. 매사 공정에 대해 부당함이 있다면 이를 참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데 적극적이고, 손해에 대해서도 민감하다. MZ세대는 자신에게 닥치거나 닥칠 불이익을 보이면 과감하게 자신의 목소리를 낸다. 과거에는 집회나 시위 등을 통해 자신의 목소리를 냈다면 MZ세대는 SNS라는 강력한 무기를 통해 자신의 뜻을 남들에게 이야기한다. 합리적 보상과 공정, 특히 자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이든 사회적이든 자신의 목소리를 분명히 한다.

이처럼 과정에 대한 ‘공정’에 집중하는 이유는 기성세대와 달리 월급만으로 평생 집을 한 채 살 수 없는 사회적 구조가 됐으며, 아무리 노력을 해도 취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식과 암호화폐 투자를 통해 벼락부자를 꿈꾸고 있다. MZ세대 입장에서 기성세대의 ‘결과에 대한 평등’이 자신들의 시각에서는 ‘불공정’으로 비쳐지는 이유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현실’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경쟁만이라도 공정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깔렸다.

‘공정만능론’은 경계해야

일각에서는 MZ세대가 협소한 의미의 공정만 강조해, 차별적 구조의 개선이나 사회적 연대는 간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대기업의 성과급 산정 기준 논란이나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에서 보듯 ‘절차적 공정’에 지나치게 몰두한다는 것이다. 기성세대가 MZ세대의 문제 제기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거나 각자도생하자는 식으로 극단적인 개인주의로 가게 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전반적 사회 공정성’에 대한 집단별 응답비율 (단위: %)



자료: 서울시립대 글로벌문화공감사회연구센터

청년세대 내부의 불평등 인식 조사결과

(단위: %, 만 20~39세 청년 1000명 대상)

불평등 영역별 심각성 비교

자산	78.8
고용	71.8
주거	71.0
소득	69.1
가족형성	52.6
교육	48.4
건강	30.1

한국 사회의 공정성과 기회에 대한 인식

(단위: %, 20~39세 청년 1000명 대상)

노력에 따른 공정한 대가가 제공되고 있다	14.3
40~50대보다 청년세대에게 사회·경제적 기회가 더 많다	18.1
사회적 성취에 있어 부모의 지위보다 내 노력이 더 중요하다	23.2
청년세대는 충분한 관심과 지원을 받고 있다	15.6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세대가 살 만한 나라다	10

자료: 서울연구원

엘도라도 미국 주식?

2018년 말 기준 한국 투자자들은 전체 주식투자 금액 중 79%를 한국에 투자하고 있는데, 한국 GDP와 시가총액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2% 미만)에 비하면 상당히 편향된 모습이다. '계란을 나눠 담는다'는 투자 원칙을 지키기 위해 해외로 눈을 돌려보면 전 세계 시가총액의 40%를 차지하는 미국 시장이 단연 눈에 띈다. 미국 주식을 사야하는 이유를 살펴보고자 한다.

미국 주식을 사야하는 이유

① 좋은 기업이 많다.

주식투자는 기업을 사는 것이다. 미국에는 글로벌 1 등이라는 사실 이상으로 아예 글로벌 기준을 만드는 기업이 많다.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차, 클라우드 컴퓨터, 빅데이터 등 4차산업만 하더라도 미국기업이 대부분 이끌고 있다. 미국 주식의 글로벌 경쟁력은 상상 이상으로 강하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기업을 보면 우리의 생활 곳곳에 녹아있는, 우리가 잘 아는 기업들이다.

② 전 세계 주식시장과 금융의 중심이다.

전 세계 주식시장을 100%라고 했을 때 미국시장이 60%, 한국은 1.6%, 중국은 4% 일본 3%다.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 역할을 하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과 국제 금융은 미국이 중심이다. 또한 가장 유동성이 높은 시장이다. 자본시장에서의 규모와 유동성은 투자자에게는 매수, 매도 가능한 물량이 풍부하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주가가 시장 가격으로서의 기능을 보다 실시간으로 발휘할 수 있어 기업 가치가 주가로 빠르게 반영되는 효과도 있을 수 있다.

③ 수익률이 높다.

S&P 500 지수와 KOSPI 지수의 수익률을 비교해보면, 1990년 1월 이후 S&P 500 지수의 수익률은 약 736%를 기록하고 있는데, 같은 기간 KOSPI 지수 수익률은 약 117%에 불과하다.

④ 달러 투자다.

미국 주식을 직구로 직접 매수한다면 달러투자가 기본적으로 전제되어 있다. 우리는 몇 차례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달러의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위기가 온 뒤에는 달러가 강해진다. 심지어 미국에서 위기가 시작되어도 달러는 강했다. 그래서 기타 국가에

서 금과 달러는 대표 안전자산으로 인식된다.

글로벌 금융위기 또는 경제위기가 재현될 경우, 한국뿐 아니라 미국 증시의 하락도 피할 수 없다. 실제 미국과 한국 대표 지수인 S&P500과 KOSPI 간의 상관관계는 대체로 0.7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 증시 투자의 원화 환산 가치는 환율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

한국 환율의 1일 변동제한폭 폐지(97.12.16) 이후인 1998년부터 2020년 4월 말까지 KOSPI와 원달러 환율 간의 상관관계는 -0.44로 부(-)의 관계를 갖는다.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 이 관계는 -0.53으로 부(-)의 상관관계가 높아지는 모습이 나타난다. 이를 반영, 한국 주식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환율이 상승한다면, 보유한 달러 자산을 원화로 환산한 가치는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달러 자산 보유가 주식 시장 하락 시, 자산 가치의 방어 수단이 될 수 있다. 1998년도 IMF 때는 원달러 환율이 거의 2000원까지 올랐고,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는 원달러 환율이 1600까지 올랐다. 주식 포함한 원화자산 가치 폭락하더라도 달러 가치 상승으로 방어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미국 주식투자는 주식에 투자하는 것과 달러에 투자하는, 자연스러운 분산 효과를 누릴 수 있다.

⑤ 계속 혁신이 일어난다.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기업들은 모두 미국에 있다. 그만큼 미국 기업들은 역동적이며 변화에 잘 대응한다. 그만큼 혁신을 일으키는 기업들이 많고, 계속해서 전통적인 사업들이 밀려나가고 혁신적인 기업이 자리를 메꾼다.

⑥ 배당이 많다.

미국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기업들까지 뺏속까지 자본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주주들을

그냥 투자자가 아니라 동업자라고 생각한다. 주주들에게 잘 보이려고 배당을 많이 준다. 우리나라는 대부분 연말배당인데 비해 미국은 분기배당, 월배당 등 배당을 높게 쳐주는 경향이 있다.

⑦ 오피스리스가 거의 없다.

미국은 내 회사라고 해도 최소한의 지분만 가질 뿐, 회사는 주주들 것이라고 생각한다. CEO는 최고 경영자로서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뿐이다. 주주들한테 잘 보여서 높은 연봉 받아야 한다. 그래서 미국에는 여러회사를 돌아다니면서 경영을 하는 'CEO'라는 직업이 따로 있다. CEO가 회사에서 잘리는 일도 매우 흔하다. 스티브 잡스도 애플에서 잘린 적이 있고, 일론 머스크도 마찬가지다. 회사는 주주들 것이라는 마인드가 박혀있다. 당연히 기업승계에 대한 개념도 없으며 우수한 CEO로 계속 바뀌어 가면서 경영을 지속해나가므로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부분이다.

⑧ 주식시장의 다양성 및 기타 장점이 많다.

최대 시장인 미국 주식시장은 다양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다. 미국 주식 투자자는, 한국에서 투자할 수 없는 업종에 투자하거나, 업종 내에서도 다양한 기업을 비교,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국 시장에서는 다운스트림에 속하는 정유회사들에만 투자할 수 있는 반면, 미국시장에서는 원유 시추와 정제까지 직접 운영하는 셰브론, 엑손모빌, BP 등의 대형 업스트림 업체들에도 투자가 가능하다. 이처럼 미국 주식시장에는 한국 시장에 없는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종목들이 다수 존재한다.

그 외의 장점으로는 세계적인 경제 강국인 만큼 대외 변수들에 의한 변동성이 낮고, 자본 시장의 긴 역사만큼이나 회계 투명성, 주가 조작 등의 노이즈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이다.



유일무이 미국 주식, 어떤 종목에 투자할까

종목명	티커	소개
마이크로소프트	MSFT	미국 증시 시총 1위 기업
아마존	AMZN	이커머스도 클라우드도 1등
알파벳	GOOGL	4차 산업혁명에 투자 중인 구글의 지주사
애플	AAPL	미국 증시 최초로 시총 1조 달러 달성
넷플릭스	NFLX	시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OTT 1위 기업
월트디즈니	DIS	종합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기업
어도비 시스템즈	ADBE	그래픽 소프트웨어계의 표준
비자	V	세계 1위 결제 네트워크업체
록히드 마틴	LMT	세계 1위 방위산업체
부즈 알렌 해밀턴	BAH	북미 사이버보안 1위 업체
버진 갤럭틱	SPCE	우주여행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일한 종목
매치 그룹	MTCH	글로벌 1위 온라인 데이팅 서비스업체

■ 미국 대장주(MAGA):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애플

MAGA가 미국 주식에서 갖는 영향력은 상당하다. S&P 500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19%가 넘을 뿐 아니라 세계 시총에서도 6.6%를 차지하고 있어 전 세계 주식 시장에서 이들에 대한 관심이 높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 글로벌 스탠다드 미국 주식 : 넷플릭스, 월트디즈니, 어도비 시스템즈, 비자

기존 콘텐츠 제작사들이 주를 이루던 미디어 시장에 구독모델을 적용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로 혜성처럼 등장해 OTT 시장을 개척, 글로벌 1위 입지를 지속해 가고 있는 넷플릭

스, 전통 콘텐츠 강자 월트디즈니는 여전히 흥행에 성공하고, 그래픽 부문에 뛰어난 기술을 자랑하는 어도비 시스템즈, 글로벌 최대 디지털 결제 네트워크 사업자 비자이다.

■ 희소성 있는 미국 주식: 록히드 마틴, 부즈 알렌 해밀턴, 버진 갤럭틱, 매치그룹

미국이 천조국이라 불리는 이유인 세계 최대 규모 국방예산의 수혜주로 미국 대표 방산기업 록히드마틴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지속되는 시기, 정보/사이버 보안을 담당하는 부즈 알렌 해밀턴 있다. 우주 관광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주식은 버진 갤럭틱이 유일하다. 세계 최고 매출 앱 틸더의 모기업 매치 그룹이다.

한류, 세계로 흐르다



최근 몇 년 사이 한류 열풍은 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와 유럽까지 불이 붙듯 번지고 있다. BTS와 블랙핑크의 음악이 빌보드 차트를 석권하고 영화 <기생충>은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4관왕을 차지하고, 배우 윤여정은 93년 아카데미 역사상 한국 배우 최초로 오스카 트로피를 품에 안았다. 넷플릭스에서 상영한 '오징어게임'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패러디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열광하는 한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류의 시작, 드라마

한류의 시작은 언제부터일까? 한류는 한국의 대중문화가 해외에서 유행해 그들의 라이프스타일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문화적 현상을 말한다. 한류가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은 1990년대 들어서다.

1993년 중국에 TV 드라마 <질투>가 처음으로 수출되었고, 1997년부터 <사랑이 뭐길래> 등이 인기를 얻었다. 이후 20여 년의 세월 동안 한류드라마는 꾸준히 한류스타를 배출하며 작품의 완성도도 인정받으며 세력을 확장해왔다. 2002년 '겨울연가'는 불세출의 '윤사파' 배우준을 탄생시켰다. 당시 배우준이 드라마 종영 직후 일본을 방문했을 때 경호원만 250명이 붙었을 정도이고, '겨울연가'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약 3조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듬해 '대장금'은 한류의 영향력을 한층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중국과 일본은 물론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권역, 아프리카, 유럽 등 총 91개국에 수출되면서 요새는 흔한 말이 된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라는 공식을 입증할 수 있었다. 주인공 이영애 역시 현재까지 해당 국가들에서 사랑받는 스타다.

2016년의 '태양의 후예'는 중국 스트리밍 업체에서 조회 수가 무려 45억 뷰를 기록하면서 중국 공안이 인기를 경계하는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 주인공 송중기는 이후 출연하는 작품마다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다.

2020년부터는 주연 배우들이 아닌 작품 자체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그 배경에는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넷플릭스가 있다. 2019년 넷플릭스가 처음으로 선보인 한국 오리지널 시리즈 '킹덤'은 K크리처극의 신기원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복을 입은 좀비들이 평화로운 시골 마을에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모습에 지구촌이 기함할 듯이 놀랐다. 킹덤의 인기로 글로벌 쇼핑 사이트에서 갓 팔리고, 평론 사이트에서는 K좀비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는 등 넷플릭스의 한국 시장 진출

은 성공적이었다. 2020년 김수현-서예지 주연의 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박서준-김다미 주연의 JTBC '이태원 클라쓰'는 일본에서 4차 한류를 일으키고 다양한 국제 시상식에서 상을 받았다.

한류드라마의 정점을 찍은 '오징어 게임'의 글로벌 신드롬은 이제 시작으로 보인다. 인도에서마저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면서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83개국 전체에서 1위를 달성하는 대기록을 세운 데 이어 출연진이 미국 '팰린쇼'에 출연하게 되고 프랑스 파리에 열린 팝업스토어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등 그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한류의 활약, K-팝

'K-팝'이 한류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데에는 인터넷의 발달과 기획사의 발 빠른 마케팅 전략 등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아이돌'을 빼놓을 수 없다. 보아를 비롯해 우리나라 2세대 아이돌이라 부르는 동방신기, 슈퍼주니어, 빅뱅, 소녀시대 같은 그룹이 일본에서 크게 성공하며 너도나도 일본 진출을 꾀했다. 미국과 유럽, 동남아시아 등지로 월드 투어 공연을 다니며 K-팝의 인지도를 높이는 등 아이돌의 활약을 위한 예열을 시작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K팝을 전 세계에 알리는 최대 사건이었다. 한류가 대중문화 변방에서 중심지인 북미로, 소수 마니아에서 대중의 문화로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강남스타일'을 세계 무대에 퍼뜨린 것은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였다. '강남스타일'은 글로벌 기획사나 홍보 없이 세계 디지털 음악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싱글이 됐다.

마침내 BTS가 '대박'이 나며 방점을 찍기에 이르렀다. 지난 2017년 5월 21일, 방탄소년단은 <2017 빌보드 뮤직 어워드 톱 소셜 아티스트 부문>에서 최중 수상을 받았다. <빌보드 뮤직 어워드>는 그래미 어워드,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와 더불어 세계 3대 대중음악 시상식으로 인정받는 큰 상이다. 중소

기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소속의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수상을 했다는 것은 K-Pop 열풍이 더는 거품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단서로 방탄소년단의 수상 소식에 해외 언론은 K-Pop의 잠재적 시장 가치, K-Pop의 음악성과 매력에 주목하기도 하였다.

웹툰·패션·화장품·먹방까지 확대된 한류

'2019 지구촌 한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현재 전 세계 한류 동호회 회원은 9천932만 명으로 전년의 8천919만 명보다 11% 증가했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 660만여 명에서 1천504만여 명으로 무려 128% 늘어나며 성장폭이 가장 컸다. 아프리카 중동이 23만여 명에서 32만여 명으로 39.1%, 아메리카가 1천185만여 명에서 1천215만여 명으로 2.53%, 아시아-대양주는 7천60만여 명에서 7천181만여 명으로 1.71% 각각 증가했다.

한류는 현지 블로거·유튜버가 직접 한국 방문기를 올리고 한국행사를 소개하는 등 다양한 한류 문화가 현지에서 자생적으로 퍼지는 것도 특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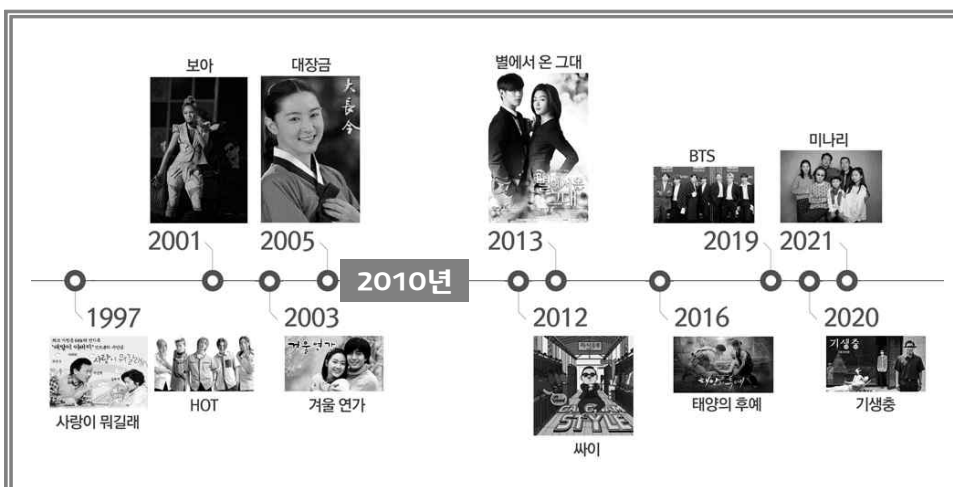
태국에서는 한류 스타처럼 아름다워지고 싶어 하는 팬들의 욕구로 한국식 화장법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이는 화장품 판매와 성형수술 관광 증가세로 이어지고 있다.

'K웹툰'도 전 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다. 만화 중 주국이라고 불리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유럽에서도 한국 웹툰이 호령하고 있다. 국내 포털업계 1위·2위를 달리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선봉장 역할에 나섰다. 한류의 봄은 영화나 게임과 같은 문화영역을 넘어서 의료, 금융, 관광, 스포츠라는 일상 영역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장르 다양화 현상은 한류가 일시적인 관심이나 호기심의 단계를 지났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류의 구분

구분	한류 1.0	한류 2.0	한류 3.0	신한류(K-Culture)
시기	1997~2000년대 중반	200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2010년대 초반~2019년	2020년~
특징	한류의 태동 영상콘텐츠 중심	한류의 확산 아이돌스타 중심	한류의 세계화 세계적 스타상품 등장	한류의 다양화+세계화 (온라인 소통)
핵심 분야	드라마	대중음악	대중문화	한국문화+연관산업
대상 국가	아시아	아시아, 중남미, 중동, 구미주 일부 등	전 세계	전 세계 (전략적 확산)
소비자	소수 마니아	10~20대	세계시민	세계시민 (맞춤형 접근)

*K-Culture는 신한류의 영문 명칭 겸 국제 홍보브랜드





태양광은 친환경 에너지일까?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중 하나가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고, 이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계속 늘고 있다. 그러나 태양광이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의 목소리가 있다. 태양광 발전을 둘러싼 환경적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가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 이는 원자력, 석탄 발전량을 낮추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비중을 키우려는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

신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를 심화시키지 않기 위해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아야 하며, 방사능 누출위험이 큰 원자력발전은 제외된다. 태양, 바람, 물, 바이오매스와 같이 재생 가능한 자연에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재생가능 에너지원을 태양열,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풍력, 소수력, 지열, 해양 에너지, 폐기물 같은 8개 분야 재생가능 에너지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수소에너지 같은 3개 분야 신에너지 등을 말한다

태양광,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재생 가능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의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발전이다. 태양광은 단어 그대로 태양에서 나오는 빛을 뜻한다. 햇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것을 태양광 발전이라고 부른다. 태양광 발전은 과거 건설 비용이 비싸 사용도가 높지 않았으나 기술개발과 태양광 패널 대량 생산 등이 이뤄지고 여러 나라에서 에너지 관련 지원 정책을 펴면서 사용이 늘어났다. 인류가 태양광에 주목한 이유는 고갈될 우려가 있었던 화석 연료와 달리 꾸준히 사용할 수 있다는 인식, 화석연료를 태우는 방식과 달리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재생가능 에너지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전에는 옥상에 설치되던 것이 '건물 일체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이 개발되면서 건물 천장과 외벽에 달아 바로 사용하고 있다. 태양광 발전기는 태양전지로 구성된 태양전지 판과 축전지, 전력변환장치로 구성된다. 지붕 위에 2~3kW 용량의 태양전지판을 설치해 인버터(전류 변환기)를 통해 태양광을 직류에서 교류로 바꿔 가정용 전기를 공급하는 원리다. 실제로 태양광 에너지는 기존 원자력,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는 달리 지속가능성을 표방하고 있어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로 미래의 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에 해답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태양광, 친환경이 맞나

태양광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은 '친환경'으

로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태양광이 현실적으로 오히려 환경에 또다른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첫째,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에 대한 처리이다.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태양광·풍력 폐기물도 골칫거리다. 태양광 패널과 풍력 블레이드(날개)의 설계 수명은 각각 15~20년, 20~30년이다. 2050년 탄소 중립까지 최소 한 번 이상은 수명이 다한 설비를 걷어내고 새로 깔아야 한다.

국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18년 17만6000t에서 지난해 279만4000t으로 15배가량 증가했다. 현 정부 들어 태양광 보급이 급증한 가운데, 패널의 수명을 감안하면 2030년 이후 폐패널 발생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향후 폐패널 발생량을 2030년 2만935t, 2040년 11만2564t으로 전망했다.

문제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 설비의 재활용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태양광 패널의 70~75%를 차지하는 강화유리는 재활용해도 경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재활용하지 않는다. 태양광 폐패널은 2019년부터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됐지만, 패널의 20~25%를 차지하는 알루미늄 등 일부 소재만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되고 있다. 현재 시범 사업 중인 태양광재활용센터의 평균 재활용 처리 비용도 t당 29만8000원 선으로, EU의 17만8000원보다 높다. 국내에는 아직 표준화된 재활용 방식이 없다.

둘째,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기 위해 나무가 훼손된다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는 것은 비용 등의 이슈보다는 환경적인 고려를 위해서인데, 태양광으로 전기를 얻기 위해 기존 삼림을 훼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형에 대한 고려 없이 보급률 확대를 위해 무조건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실정이고, 이는 멸종위기에 처한 산을 태양광 발전소로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야기했다. 2018년 7월 경북 청도군 매전면의 한 태양광 발전소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 태양광 패널 설치를 위해 나무를 베어 기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태풍이 상륙하여 발생한 산사태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흩더미가 도로를 덮쳐 위험천만한 상황을 연출했다. 임야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베고 산을 깎아야 한다. 산에 있는 나무는 흙을 잡아주고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집중호우로부터 산사태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역할을 하는 나무들을 베고 산을 깎은 결과는 산사태이다. 현재 정책 상 태양광 발전은 허가도 잘 나오는 편이고 허가 이후에는 별 다른 규제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엄청난 산림 훼손이 일어나고 있다.

셋째, 태양광 패널의 수명 문제이다. 결국 태양광 패

널도 소모품이다. 태양광을 설치하려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양전지의 효율 문제와 더불어 중요시되는 것이 수명 문제이다. 태양광 패널의 기대 수명은 평균 25년이고 국내에서 지난해 발생한 태양광 폐패널은 약 200톤이다. 이 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으며 대부분 땅속에 매립된다. 폐 패널 안에는 은이나 구리 등 재활용 가능한 부품 소재가 들어 있지만 회수 비용이 비싸 효율성이 떨어져서다.

태양에너지는 무한한 에너지원일지라도 태양광 패널은 온도 과열로 인해 발전 성능이 최저점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짧은 수명을 가지게 된다. 수명이 다해 버려진 패널에서 심각한 중금속의 누출,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버려진 태양광 패널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결정질 실리콘이라는 핵심 물질 때문이다. 결정질 태양전지는 전체 태양전지의 90%를 차지할 만큼 대중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이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업화규소로 명명되는 부산물이 생성되는데, 이 물질은 사람의 피부와 시력에 악영향을 주며, 폐부종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증상까지 동반할 수 있다. 또한 심할 경우 동식물 모두 죽음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물질이다. 또한 버려진 태양광 패널에서 납과 카드뮴, 인듐, 구리, 육불화에탄 등 다양한 중금속이 검출된다. 중금속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경우 일차적으로 대기, 수질, 토양 오염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란 농수산물로 인해 인간에게도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준다. 중금속 오염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이다.

태양광에 제기된 환경문제 연구 진행 중

태양광 패널을 둘러싼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태양광 폐패널을 재활용하기 위한 분리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소모량을 기존 공정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여 수익성이 2.5배 높아졌다는 게 연구원 발표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하루 2t 처리량 기준 연간 약 205.6MWh 이상의 에너지 소모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양광 패널 부품 중 65% 이상은 저절분(200ppm 미만) 고급유리다. 실리콘과 같은 불순물이 혼입된 경우 kg당 40원 내외로 판매되지만, 불순물이 없는 경우는 100원 이상으로 판매가 가능해 수익성이 우수해진다. 태양광 폐기물들이 처리 규정에 따라 깨끗하게 처리되고 회수된 소재를 재활용하면 환경 관련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태양광 관련 제기된 문제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빠르게 늙어가는 대한민국

2020년 노인 실태조사

여가 및 사회활동

현재의 삶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은 취미·여가활동 **37.7%**

다음으로,

25.4%

경제활동

19.3%

친목(단체)활동

14.1%

종교활동

3.5%

기타

정보화 능력

노인의 스마트폰 보유 비율 증가

0.4%

56.4%

생활환경

노인의 **83.8%** 건강할 때 현재 집에서 거주하기를 원함

경제활동

노인 개인 소득 지속 증가

700만원

2008

1,176만원

2017

1,558만원

2020

가구 소득 구성

28.4%

공적이전소득

6.5%

근로소득

11.8%

사업소득

6.9%

재산소득

6.3%

사적연금소득

24.1%

근로소득

17.2%

사업소득

11.0%

재산소득

경제활동 참여율

65세 이상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30.0%

2008

30.9%

2017

36.9%

2020

65~69세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

39.9%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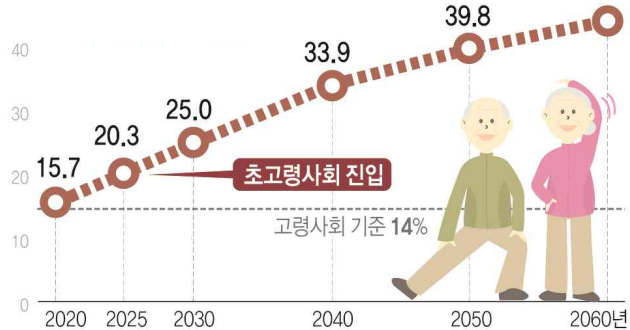
42.2%

2017

55.1%

2020

65세 이상 인구 비중



65세 이상 고용률 및 실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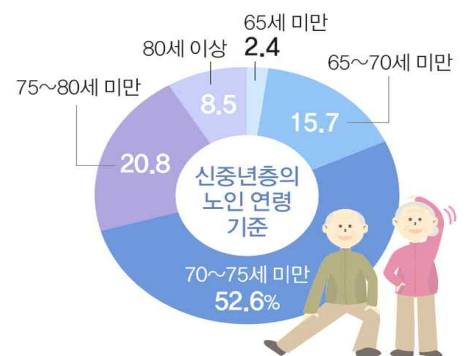
65세 이상 고령자 하루 사용 시간 패턴 변화

	2014년	2019년
평균 수면 시간	8시간 22분	8시간 28분
건강관리 · 개인위생	1시간 25분	1시간 42분
근로시간	1시간 26분	1시간 28분
가사노동	2시간 23분	2시간 17분
교제 활동	51분	46분
방송 시청	3시간 48분	3시간 32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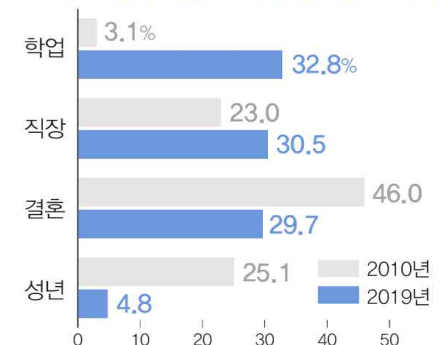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현재 50~69세

‘신중년층’ 노후인식 조사 결과



50대가 생각하는 자녀 부양 완료 시기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노인 실태조사

2020년 3월~11월 전국 65세 이상 노인 1만 97명 조사

거주 형태

노인 단독 가구 78.2%

노인 부부

58.4%

노인 독거

19.8

자녀 동거

20.1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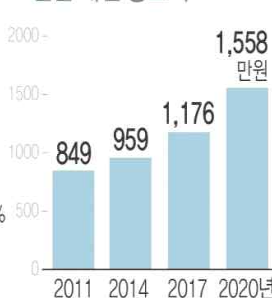
1.7

자녀와 동거 희망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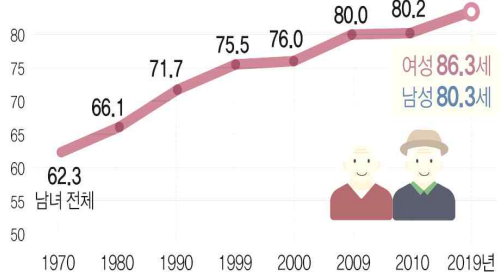


자료: 보건복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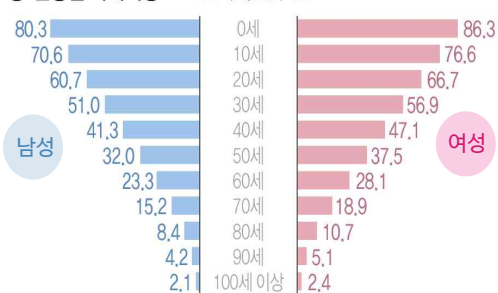
연간 개인 총소득



평균 기대수명 추이



성·연령별 기대여명 2019년 기준, 단위: 년



자료: 통계청



환경을 지켜야 할 크리스천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환경과 인간이 어떻게 조화하는가 알려면 환경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를 알아야 한다. 환경은 우리가 사는 생물 환경과 생물을 제외한 무기환경이 있다.

무기환경은 쉽게 말하면 물, 공기, 흙 등을 말한다. 물, 공기, 흙이 어떻게 생물이 살기에 알맞게 만들어졌는가를 살펴보면, 첫째 물은 생명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물질이며, 생체의 70~80%는 모두 물이다. 또한 생명체내의 반응들은 모두 물에서 일어난다. 물 아닌 데서 일어나는 생체 반응은 하나도 없으며, 생화학반응 자체도 대부분 물하고 반응하게 된다.

그러면 물이 어떻게 생물이 살기에 알맞게 되어있는지 지구의 표면을 보면 약 70%가 바다이고, 30% 정도가 육지로 되어있다. 그러나 만약에 땅을 70%로 바다를 30%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면 이 지구상에 생물은 살 수가 없게 된다. 물은 모든 물질 중에서 비열이 가장 큰 물질이다. 햇빛이 비칠 때 보면 태양은 열을 받더라도 온도가 올라가지는 않는다. 태양의 유무나, 구름의 유무에 따라서도 태양에서는 그렇게 온도의 변화가 없다. 우선 바닷속은 온도의 밤낮 기온 차가 없다. 그런데 만일 육지가 70%이면 기온의 차가 열에 따라 극심하여 사람이 살기 불가능할 것이다. 또한, 다른 물질과는 달리 물은 4℃ 때 밀도가 가장 크다. 일반 금속들은 온도가 낮아지면 밀도가 커진다. 그러나 물만은 특이하게 4℃에서 밀도가 가장 크다. 그러면 온도가 낮아질수록 밀도가 커지면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까? 바닷물 밑은 모두 얼음으로 덮일 것이고, 호수도 아래서부터 얼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생명이 지탱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나 물이 4℃ 때에 밀도가 가장 크므로 생명이 보존될 수 있다. 태양 주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등 90개의 행성이 있으나, 물이 발견되는 곳은 유일하게 지구뿐이다. 이것으로 보아 생명체가 그 생명을 유지하는데 얼마나 물이 귀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얼마나 완벽하게 이 지구상에 물을 부여하셨는지를 알 수 있다.

둘째, 공기에는 여러 기체가 존재하지만 대부분 구성하는 것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 탄산가스 0.034%이다. 그 외에 여러 물질이 있어서 미약하나마 지구상의 모든 원소가 다 존재한다. 또한 공기의 압력은 지구상의 생물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만일 공기가 많아 너무 세면 사람은 바닷물 깊이 들어갈 수 없으며, 압력이 너무 약하다면 사람과 동물은 혈관이 터져서 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공기의 양을 조정하신다.

질소는 공기 중 78% 정도 되는데, 구약성경에 보면 6년간 농사를 지은 후 1년간 안식년을 두어 토지를 쉬게 한다. 이때 자라는 잡초들은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고정하는 뿌리혹박테리아를 뿌리에 많이 가지고 있어 토지를 비옥하게 하는 질소비료를 형성한다. 우리가 숨 쉴 때 산소가 필요하게 되며, 산소의 적당한 비율은 생태계를 알맞게 유지하는 원인이 된다. 산소가 적으면 수중에 사는 생물들이 서식하기 어려워진다. 물속에는 산소가 매우 적게 녹아있으며, 만일 공기 중에 산소가 지금보다 적으면 물속에 있는 생물들은 살 수가 없다. 또한 공기 중에 산소가 현재보다도 더 많다면 아마도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가 없어 온 지구상에 큰 재난을 초래하고 결국은 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적당한 만큼의 산소를 공기 중에 주셨다.

지구 상층 15~30km에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는 지구 대기권 안의 산소는 보통 O₂로 존재하나 높이 올라가게 되면 태양에너지가 과다하게 되어 산소는 분자로 존재하지 못하고 원자 상태(O, O,...)로 존재하게 된다. 물론 질소 등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그 아래로 내려오면 O₂와 O가 공존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오존층이다. 이 오존층은 자외선, 우주선, 감마선, X선 등을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런데 만일 지구상의 공기의 양이 적으면 오존층은 지하로 더욱 내려오게 될 것이고 사람은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오존은 많이 쪼면 사망하게 되나 적당한 거리로 유지하고 있어 생명을 보존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기 중에 0.034% 존재하는 탄산가스와 시간과 장소에 따라 비율이 일정하지 않은 수증기도 생명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구의 평균 습도는 약 1.1%로서 수증기와 탄산가스는 공기 중에서 그 양은 적지만 이들은 긴 파장의 적외선을 흡수하여, 태양에너지를 받아 단파장을 흡수한 땅이 더워지면 장파의 적외선을 방출하여 수증기와 탄산가스가 이 적외선을 흡수하게 되어 지구 기후를 따뜻하게 해준다. 공기 중의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과 가까워지나 더욱 기온이 떨어지는 것은 적외선을 흡수하지 않기 때문이며, 지상의 탄산가스와 수증기의 알맞은 조성은 지구의 기온을 꼭 알맞게 유지해 준다.

셋째, 점토로 구성되는 흙의 이 점토는 모두 -전기를 띠고 있어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의 생물에 유용한 성

분을 붙들고 있으며, 흙 중에 있는 유기물질들은 +전하를 띠어 질산염, 인산염 등의 비료 성분이 유기물에 붙어 영양분을 공급하여 식물이 성장하게 된다. 만일 돌이나 모래만 존재한다면 생물은 살 수 없을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환경은 생물이 살아가는데 가장 적합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오히려 모든 생물이 환경에 알맞도록 진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말로 그러한 진화의 흔적이 있을까?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사막에 사는 낙타의 혹 안에 물이 차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래서 물이 귀한 사막에서 잘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막에 적응하도록 진화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그러나 영국의 한 생물학자가 조사했으나 낙타의 혹에서 물은 나오지 않고 탄소와 수소와 산소로 구성된 기름만이 나왔다. 낙타는 이것을 산화시켜 탄산가스와 물로 만들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가르쳤으나 낙타가 사막을 다니게 될 때 공기 중에는 수분이 없다. 기름은 아무리 많이 산화시켜도 내쉬는 숨 속에 수분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몸속의 기름은 산화시킬수록 수분이 더 부족하게 될 뿐이다. 사막을 건넌 낙타의 피를 조사해 보면 피 속에 물이 거의 없음을 발견하게 된다. 물이 없으면 죽으나 낙타는 물이 거의 없더라도 살 수 있도록 참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무기환경뿐 아니라 생태계도 하나님께서 오묘하게 만드셨다. 찰스 엘튼이라는 생물학자는 1900년대 초 북극의 툰드라지방의 곰핌을 탐험하였다. 그곳에서 여우를 관찰하였는데, 산도 골짜기도 없는 이곳에서 여우는 새를 잡아먹었다. 새는 또 풀을 뜯어 먹으므로, 곧 여우는 풀을 뜯어 먹은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 새 중에는 곤충을 잡아먹는 새가 있는데, 곤충은 풀을 먹기 때문에 여우는 곧 풀을 먹은 것과 같다. 즉 먹이사슬을 말하는 것으로 사람이 쌀을 먹고, 이 쌀은 곧 땅으로부터 온 것이듯, 창세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한 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면 흙에는 무수한 영양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찰스 엘튼은 생물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는데, 식물 플랑크톤이나 풀과 같은 것을 생산자라 하고, 곤충, 새, 물고기 등 에너지를 직접 만들어 내지는 못하는 것들을 소비자라고 한다. 땅에 있는 영양소는 동물의 배설물이나 식물이 썩어야 하는데, 이것은 미생물들이 분해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생물을 분해자와 생산자, 소비자로 나누게 되어 결국은 영양소가 순환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태계를 순환하도록 만드심으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셨다.

<자료:창조과학회 제공>



열방의 다이제스트

인도, 2021년 기독교 박해사건 3백 건 이상 발생

인도의 기독교인은 인구의 2.3%, 힌두교인은 약 80%에 이르지만 급진적인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힌두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기 위해 무력이나 금전적 보상을 사용하는 소수를 처벌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였다. 미국에 기반을 둔 박해 감시 단체인 국제기독연대(ICC)에 따르면, 기독교인 박해사건이 2021년에 300건 이상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북부 우타라칸드 주에서 발생한 공격으로 급진적인 힌두교 민족주의자들 2백여 명이 교회를 파괴했으며 이로 인해 기독교인 여성 3명이 중상을 입었다. 당시 예배가 시작될 무렵, 폭도들은 교회로 돌진해 신도들을 짓밟고 교회 재산을 파괴했다. 몇몇 인도 주에는 기독교인이 힌두교도를 기독교로 개종시키도록 강제하거나 금전적 혜택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개종금지법이 있다. 기독교인은 누군가를 기독교로 '강제로' 개종시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없지만, 이 법률은 힌두 민족주의 단체가 강제 개종을 구실로 기독교인을 거짓 고발하고 공격하는 것을 허용한다. 오픈도어가 발표한 2021년 세계 감시 목록에 따르면 인도는 기독교 박해와 관련해 전 세계에서 10번째로 최악의 국가다.

美 Z세대, "종교성 있지만 종교 조직 거부 성향"

'스프링 타이드 연구소'가 발표한 '2021 종교와 청년들의 현황: 불확실성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Z세대 중 개신교인 응답자의 68%만이 "영적 또는 종교적 공동체의 일원"이라고 답했다. 조직화된 기독교 단체와의 유대를 거부하는 '그냥 기독교인'이라고 답한 응답자 중 52%는 과거에 "종교 공동체에 속했거나 참여했다"라고 답한 반면 48%는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Z세대 미국인 응답자의 71%는 자신을 "최소한 약간은 종교적"이라고 답했으며, 78%는 자신이 "영적"이라고 답했다. 조사에서 Z세대는 불확실하거나 어려운 시기에 종교 기관이 아닌 가족(49%)과 친구(55%)에게 먼저 마음을 털어놓는 것을 더 선호했다. 이는 다른 어떤 관계보다 2배 더 많은 의존도를 보였다. 또한 종교 공동체의 누군가를 의지하는 것만큼 "아무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률도 서로 비슷했다. 이 연구는 "자신을 신앙인"이라고 여기는 많은 젊은 층이 영적 또는 종교적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며, 상당수가 종교 조직과 분리되어 자신만의 종교적 또는 영적 경로를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얀마, 문민정부 인사에 징역 75년 수치 102년 가능

미얀마 쿠데타 군사정권의 법원은 문민정부 주요 인사 2명에게 부패 혐의로 각각 징역 75년과 90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모두 아웅산 수치(76) 국가 고문이 이끄는 민족민주동맹(NLD) 소속이다. 군부는 두 사람을 뇌물 수수 등 부패 혐의를 포함해 각각 5개, 6개의 범죄 혐의로 기소했다. 가디언은 이날 판결에 대해 "지난 2월 1일 군부가 권력을 장악한 이후 체포된 민족민주동맹인사에 대한 판결 중 가장 가혹하다"고 썼다. 현재 부패·무전기 소지 등 11개 범죄 혐의로 기소돼 가택연금 상태인 수치 고문의 재판에 이목이 쏠렸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

北, 온라인몰에 '재활용' 사이트 개설

북한의 온라인 쇼핑몰이 한국의 '당근마켓'처럼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거래할 수 있는 '재활용' 사이트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영문 주간지 평양타임스는 작년에 개설한 '재활용 정보 교환 플랫폼' 전자상거래 사이트 '만물상'을 소개했다. 만물상은 북한 전자상거래 연구·개발 전문기업인 연풍상업정보기술사가 2015년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로 인터넷으로 화장품과 인삼, 영양제 등을 판매하고 있

다. 평양타임스는 "플랫폼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제품, 장비, 원자재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이들 물품을 합리적인 방법으로 교환·거래하고 싶은 공장, 기업소, 상업봉사단위, 개인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대북 제재와 외화 부족 등으로 자원 수입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연일 주민들에게 '재자원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이 플랫폼은 그런 수요를 반영했을 가능성이 있다.

韓 "잠재성장률 하락"... 커지는 경고음

대한상공회의소 지속 성장 이니셔티브(SGI)는 '성장잠재력 저하 원인과 제고 방안'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노동생산성 하락과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앞으로 10년 이내에 1%대 중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경제 잠재성장률은 2000년대(2000~2009년) 4.7% 수준에서 금융위기, 코로나19 위기 등을 거치며 올해 2%까지 떨어졌다. 보고서는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생산성 향상, 출산

율 제고, 여성 경제활동 참가 확대, 퇴직 인력 활용도 제고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국내 출산율은 OECD 평균 수준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소속 유럽 국가 평균 수준으로 각각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11~2015년(연평균 1.9%) 수준으로 제고하는 등의 종합대책이 시행될 경우 2030년 잠재성장률은 기존 예측인 1.5%에서 2%대 중반까지 반등할 수 있을 것으로 SGI는 전망했다.

'DMZ 평화의 길' 7개 테마노선 개방

정부는 11월 20일부터 '디엠지(DMZ) 평화의 길' 강화·김포·고양·파주·화천·양구·고성 등 7개 테마노선을 개방한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은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10개 지방자치단체 노선으로 조성됐다. 이번에는 노선 정비와 철새 보호 등을 위해 3개 노선(연천·철원·인제)을 제외한 7개 노선을 개방한다. 강화·김포·고양·화천·양구 5개 노선은 처음 선보인다.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로 지친 국민들의 마음

을 위로하고 위축된 지역관광 회복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7개 테마노선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한국관광공사 '디엠지(DMZ) 평화의 길' 누리집과 걷기 여행길 정보제공 모바일 앱 '두루누비'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와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자(방문일 기준 3일 이내)만 가능하다. 관광객 안전을 위해 도보 구간과 차량 이동 구간으로 구분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국토부심의통과

인천시에 따르면 신월IC~서인천IC~남청라IC 19.3km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국토부 투자심의를 통과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하는 2조 원 규모의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려면 다음 달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야 한다. 아울러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 사업도 국토부

투자심의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5천972억 원을 들여 왕복 4차로 규모의 지하도로 4.5km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시는 이 구간에 지하도로가 조성되면 인천대로와 주변 교통 혼잡이 크게 완화돼 인근 원도심 재생 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같은 듯 다른 감기와 독감

감기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중 하나다. 간혹 감기와 독감을 비슷하게 알고 있거나 감기의 증상이 심한 경우를 독감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감기와 독감은 원인, 증상, 합병증 등에서 차이가 나는 전혀 다른 질환이다.

구분	감기	VS.	독감
원인	감기는 200여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환으로 리노바이러스와 코로나바이러스가 대표적이다. 늦봄과 초가을 환절기에는 리노바이러스가 많고, 추운 한겨울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가 많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원인이 되어 나타나는 질환으로 A, B, C 세 가지 형태가 있다. 그중 A형이 변이를 자주 일으켜 2009년 유행했던 신종 인플루엔자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90%를 차지한다.
증상	감기는 바이러스에 노출된 지 1~3일 후에 증상이 나타나지만, 바이러스가 코와 목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에 침투한 정도, 환자의 연령, 보유질환, 면역상태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달라진다. 일반적으로는 재채기, 콧물, 코막힘, 인후통, 기침, 객담,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발열 증상의 경우 성인에게는 거의 없거나 열이 나더라도 미열에 그친다. 하지만 소아에게서 발열 증상은 흔하게 보인다. 감기 증상은 1~2주 내에 특별한 치료 없이 호전되지만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는 감기로 인한 여타의 합병증이 의심되므로 주의 기울여야 한다. ■ 10일 이상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 되는 경우, ■ 39도 이상의 발열 ■ 식은땀과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 ■ 심한 피로감 ■ 배가 아프거나 토하는 경우 ■ 귀의 통증 ■ 심한 두통, 호흡 곤란 ■ 유·소아의 경우 지속적인 울음		독감은 두통, 발열, 오한, 근육통, 피로감, 식욕부진 등의 전신 증상이 갑자기 발생하면서 인후통, 기침, 콧물, 코막힘 등의 호흡기 증상이 동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감기와 유사하게 발열 증상 없이 호흡기 증상만을 보이는 경우도 있어 기침을 하거나 목이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감기에 걸렸다고 속단해서는 안 된다. 독감백신 부작용 1. 주사 부위 통증, 발적, 부기 2. 미열 3. 메스꺼움, 두통 또는 피로 4. 현기증 또는 실신 5. 인후통 6. 길랭-바레 증후군 7. 알레르기 반응 부작용이 생겼다면 보통 하루나 이틀 이내 저절로 사라진다. 근육통이나 두통, 독감과 같은 증상에는 이부프로펜 계열의 진통제를 복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며, 주사 부위가 아프다면 냉찜질이 효과적이다.
합병증	감기에 걸리면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축농증), 폐렴 등이 동반될 수 있다. 감기에 의한 급성 중이염은 소아에게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폐렴은 소아, 65세 이상 노인, 면역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에서 더 잘 발생한다.		독감으로 인한 합병증은 65세 이상 노인, 심혈관계·호흡기계·신장 등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당뇨, 응고장애, 면역억제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발생한다. 폐렴이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며 독감 예방접종을 통해 폐렴과 같은 중한 합병증을 줄일 수 있다.
예방	감기와 독감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손을 자주 씻어 손에 묻어 있을 수 있는 감기 바이러스를 없애고, 손으로 눈·코·입을 비비지 않아야 한다. 샤워할 때는 뜨거운 물이 아닌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여 급격한 체온 변화에 따른 면역력 저하를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공기가 건조해지면 기도 역시 건조해져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적절한 습도(40~60%)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린이는 성인에 비해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피하는 것이 좋다. 감기의 경우 그 원인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200여 가지가 넘기 때문에 예방백신이 존재하지 않으나 독감은 예방접종으로 70~90% 예방이 가능하다. 하지만 예방접종의 효과가 1년밖에 되지 않아 독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마다 접종해야 한다. 건강한 사람이라면 굳이 예방접종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65세 이상 노인, 5세 이하 유아나 어린이, 심혈관계·호흡기계·신장 등에 만성질환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암·당뇨 등 대사 및 면역장애자는 접종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방접종은 늦어도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2주 전인 11월초까지 접종한다.		



한파에 건강 지키기

올겨울 '북극 한파' 온다

라니냐 발달

동아시아 지역 겨울 기온 하강

음(-)의 북극 진동

북극 한기 가두는 제트기류가 느슨해져 찬 공기 남하

평년보다 많이 낮은 북극 얼음

우랄 산맥 부근 '블로킹' 현상으로 북극 한기가 한반도로

유라시아 대륙 눈덮임 면적 증가

시베리아 고기압 강화

■ 뇌·심장 저격하는 한파, 아침 운동 삼가

뇌졸중과 심근경색은 추운 날 아침에 많이 발생한다. 사람이 잠에서 깨면 느슨해진 교감신경이 예민해지고, 온몸이 긴장상태가 된다. 잠에서 깬 직후 심장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장 크다. 거기에 찬 공기에 노출되면 심장 부담은 더 커진다. 두 가지 위험인자가 겹치는 겨울철 아침, 추운 공기에 갑자기 노출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등이 나타날 수 있다.

혈압이 높으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4~5배 증가한다. 당뇨병이 있으면 혈관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미세혈관 기능에 이상이 생겨 혈관이 약해질 수 있다. 고지혈증이 있으면 혈관 벽에 지방이 붙어 혈관이 좁아진다. 고혈압 환자는 추운 아침에 혈압이 갑자기 높아져 뇌혈관이 터질 수 있다. 당뇨병도 뇌졸중 위험을 1.8~2.5배 정도 높인다.

■ 난방비 절약하기, 실내온도는 18~20도 유지

외부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는데 내부온도를 너무 높게

올리면 난방의 효율이 떨어진다. 따라서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서 적정온도를 유지한다. 외출시에는 외출모드, 평상시 실내온도 2~3도 낮게 설정하면 기존의 온기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다시 난방을 올릴 때 절약 효과를 볼 수 있다.

■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점

비교적 낮은 온도, 45도 가량에서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낮은 온도의 열을 지속해서 피부에 쬐면 '저온화상'을 입는다. 심하면 물집이 잡히고 괴사에 이를 수 있다. 사람 피부는 48도에서 5분, 50도에서 3분, 60도 이상에서는 8초 정도 노출되면 단백질이 파괴돼 변형이 일어날 수 있다. 건조증도 문제이다. 실내에서 난방기구를 오래 사용하면 실내가 건조해지고 바로 피부에 영향을 미친다. 조금 더 심하면 발그레해지거나 각질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심해지면 작은 자극에도 피부장벽이 손상되어 습진이나 피부염으로 변질 수 있습니다. 가려움증이 심해져 피부를 긁다 보면 2차 감염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한 번 믿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인가

“교리 자체가 악을 키워요. 아무리 죄지어도 교회 가면 죄가 없어진다니 얼마나 악행하고 주말에 교회 가서 회개하고 다음 주에 또 악행하고... 신자 중에 나쁜 놈들이 많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의 비윤리적 범죄에 대한 기사에 달린 악플이다. 이런 사회 분위기를 민감하게 여긴 고(故) 옥한흠 목사는 한국 교회 대부흥 100주년 기념 대회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청중은 원래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모두가 ‘아멘’ 합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고, 구원도 확신할 수 없다고 하면 얼굴이 금방 굳어져 버립니다.”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믿음만으로는 구원을 말하면 ‘값싼 구원론’, 행함을 중시하면 ‘행위 구원론’이란 말로 서로 비판의 칼날을 세우는 이신칭의 논쟁이 한창 진행 중이다. 물론 성경은 값싼 구원론도, 행위 구원론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런데도 양측의 주장을 들여다보면 어쩔 수 없이 한쪽은 값싼 구원론, 다른 한쪽은 행위 구원론처럼 비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단 특정 교리주의나 신학적 전통이나 편견을 뛰어 넘어 성경 그 자체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값싼 구원론과 행위 구원론의 대립전

1980년부터 세계 복음주의 신학계에 종교 개혁기의 이신칭의론을 문제 삼은 일군의 신학자들이 등장했다. E.P. 샌더스와 제임스 던, 톰 라이트를 주축으로 한 ‘바울의 새 관점’ 학파다. 이들은 예수님과 바울 당대의 유대교는 행위를 통해 구원을 추구하는 공로주의나 율법주의 종교가 아니었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과 은혜를 먼저 강조하고, 율법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자신들의 신분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인 ‘언약적 율법주의’를 표방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울은 구원론보다는 어떻게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동등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둔 교회론 또는 선교론 차원에서 이신칭의를 주창했다고 본다.

특히 톰 라이트는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에 의해 믿음만이 주로 강조된 치우친 구원론적 칭의론을 1세기의 정황에 부합하는 교회론적 칭의론으로 보완해 신학적 균형을 잡고자 했다. 그래서 누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는 법정적 선언을 받느냐는 구원론적 관점 못지 않게, 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 속해 있는지를 중시하는 교회론적 관점의 칭의론을 강조하고자 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새관점 학파가 가장 크게 비판받은 신학적 문제점은 이중칭의론이다. 신자의 초기 칭의는 믿음으로 주어지지만 최종적인 심판 자리에서의 칭의는 신자가 성령을 따라 순종한 모든 삶의 여정에 상응해서 주어진다는 칭의론이다.

<칭의란 무엇인가>는 이러한 새 관점이 표방하는 칭의론의 장단점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균형잡힌 구원론을 성경 신학적으로 재정립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값싼 구원론으로 오해받는 전통적 칭의론과 행위 구원론으로 취급받는 새 관점적 칭의론의 장점들을 문맥에 맞게 포괄하는 양시론적 입장이 성경적 칭의론에 가깝다고 주장한다.

이신칭의 논쟁의 주된 이슈 세 가지

첫째, 칭의는 무엇이며, 그 신학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그와 연합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속죄를 위해 그들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하시는 것처럼, 그들의 의를 위해 예수님의 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신다. 칭의는 인간의 법적인 신분과 새로운 상태에 대한 선언에만 국한되지 않고,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그의 존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드시는 신적인 구원 행위까지를 포함한다. 성령을 통한 칭의로 인해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며, 그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과 삶의 스타일이 결정된다.

둘째, 칭의와 성화는 서로 구분될 수 없는 하나인가, 둘인가?

바울에게 의와 칭의는 이미 주어지고 이루어진 과거적 사건인 동시에 지금 여기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현재적 사건이며(롬 3:22-28; 갈 2:16), 장차 주어질 미래적 사건이기도 하다(롬 2:13, 3:30; 갈 5:5; 딤후 4:8). 또한 바울은 성화도 칭의처럼 과거, 현재시제로 사용하고, 칭의처럼 종말론적으로 사용한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 안에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처럼 거룩함을 받았다(고전 6:11).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거룩해진다(고전 1:2).

바울은 성화를 뜻하는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의롭다 하심’보다 먼저 말하면서 성화가 중생 후에 뒤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동일한 구원의 다른 표현임을 암시하기도 한다. 또한 바울은 구원이 이미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금 여기서 구원이 계속 주어지고 있고, 또한 미래에 받게 될 것이라고도 말한다.

종교개혁 시대에는 가톨릭이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하는 바람에 공로주의가 득세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유일성이 훼손되는 당시로서는 부분적으로 성경의 지지를 받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러한 종교개혁 신학을 오해 또는 오도해서 기독교 복음을 윤리 없는 값싼 복음, 십자가 없는 값싼 은혜로 만들고, 신앙과 삶, 신학과 윤리를 나누어 교회의 비유니성과 부패를 방조하는 오늘날의 상황에서 성경의 또 다른 측면의 지지를 받는 칭의와 성화를 동일시하는 가르침

이 절실히 필요하게 되었다.

셋째, 신자에게 선행이 없는 경우, 최종적인 칭의로부터 탈락할 수도 있는가?

바울은 자신의 서신 곳곳에서 믿음에 의한 구원 및 성도의 견인과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행위에 따른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사상을 배제하거나 축소하지 않는다. 바울은 행함의 유무에 따라 단순히 상급의 유무가 아니라 최후 심판에서 두 종류의 결과, 곧 영벌의 심판과 영생의 축복이 나뉜다고 경고한다.

바울은 이신칭의를 강조하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에서조차 행함이 단순히 믿음의 열매나 결과가 아니라, 믿음의 필수적 요소임을 강조한다. 그는 로마서의 서문과 결론에서, 복음이 가져오는 것은 단순히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고 말한다. 또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고 말한다. 여기서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은, 의와 구원을 가져오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사랑의 행함을 동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직된 교리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구원의 필수 요소인 믿음과 행함, 양자에 대한 극단적이고도 편향된 강조는 지양하되 목회적 필요에 따라 지혜롭게 둘 다를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하며, 지금은 시대적으로 행함 있는 믿음을 더 강조해야 할 때라는 저자의 결론은 타당해 보인다.

행함 있는 믿음은 신자들에게 두려움을 주려는 가르침이 아니다. 얼마나 순종해야 구원의 커트라인 안에 드느냐를 따지려는 가르침도 아니다. 천국은 무슨 자격을 따라 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삶에 익숙해지는 것 자체다. 그래서 구원은 주를 향한 지속적인 믿음과 순종의 삶의 방향이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이 믿음의 여정은 성령의 인도하심의 은혜와 능력으로만 이뤄지기 때문에, 참된 회개의 삶에 익숙지 않은 육신적인 신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길이다.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벧전 4:18) 값싸고 쉽기만 구원론에 줄곧 목격한 경종을 울린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Good News



당신을 참 행복으로 이끄는 리빙웨이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비율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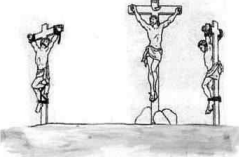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락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9		6		
				8			10		10
2		2							
		3			3			11	
	4				15		14		
			12	11			16	15	
	18					17			
5				13	12			17	16
		7					13		
6					14				

가로문제

- 탄소를 배출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여 실질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일
- 건강하고 씩씩한 사나이
- 작은 바늘을 큰 몽둥이라고 한다는 뜻으로, 작은 일을 크게 부풀려서 말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지표면 가까이에 아주 작은 물방울이 김처럼 부영계 떠 있는 현상
- 아직 상점에 내놓지 않았거나 팔다가 남아서 창고에 남아 있게 된 물품
- 인간 발달 단계의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이차 성징이 나타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심신 양면으로 성숙기에 접어드는 시기
- 반드시 상대를 물리쳐 이김

- 담배를 끊음
- 피부가 노화하여 잡힌 금
- 아무 까닭도 없이 억지로 힘을 잡음
- 여러 사람이 모여서 즐겁게 놀
- 무척 노한 상태에서 내리는 호되고 급한 명령이나 꾸짖음
- 갑종 근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
- 어떤 일을 그날 하루에 모두 해 버림
- 모르는 사람과 처음으로 인사할 때 성과 이름을 서로에게 알려 줌
- 특정한 사실에 대해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
- 다섯 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손
- 회사의 우두머리로 회사 업무의 최고 책임자

세로문제

- 장래가 어려움이 없이 순탄함을 길에 비유하여 이르는 말
- 빈대떡, 누름적, 전병과 같은 기름에 부쳐서 만드는 음식을 통틀어 이르는 말
- 공화국의 최고 지도자로서 외국에 대해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의 원수
- 공장이나 공사장 같은 곳에서 주의 소홀이나 안전 교육의 미비 등으로 일어나는 사고
- 옷을 마르고 짓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 죽이고 살릴 사람의 이름을 적어 둔 문서나 장부
- 강의나 연설 등의 내용을 받아적음
- 금액을 밝히지 않고 종이에 써서 봉하여 주는 상금, 격려금, 기부금 따위를 이르는 말
- 연극이나 영화에서 주인공 역을 맡아 연기하는 일, 또는 그렇게 하는 사람

- 이사한 후에 이웃과 친지 또는 친구 등을 불러 음식을 대접함
- 가볍고 방정맞게 야단을 피우는 말이나 행동
- 장래에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미리 설정하는 저당권
- 젊은 사람의 검은 머리에 드문드문 섞여서 난 흰 머리카락
- 이름, 직업, 연락처 등을 적은 조그마한 종이
- 인류를 최악의 굴레에서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르는 말
- 작동이 되지 않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전화 따위의 기계를 이르는 말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받거나 폐를 끼치는 일

<지난 11월호 정답입니다>

백	신		망	연	자	실		어	깨
화			원			직	언		소
점	입	가	경		검		중	도	금
		계		폭	소		유		
낭		부	조	리			골	목	길
패	착		문					격	
	불	청	객			백	록	담	
철		구		돛		두			버
경	찰	서		단	두	대		향	락
	나		도	배		간	절	기	

- 정답은 2022 1/2월호에서 확인 바랍니다.
- 핸드폰으로 찍어서 정답을 보내주신 분은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010-7152-4460)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어린이를 통한 친국가족 만들기

2021.11.28(주일)



이벤트데이
11월14일(주일)



전도
공동체/청년부



리더십사관학교

2021년 11월3일~

2022년 1월26일

매주 수요일 오후 7시30분



리더십사관학교 소그룹 모임



비전목장 순모임



조용범형제 사업장 심방

“성경, 하나님을 만나는 지름길입니다”



상동목장
김선원집사

저는 코로나 이후 성경통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하는 성경통독은 진도도 잘 안 나가고 또 성경을 읽다가 조금만 궁금증이 생기거나 이해가 안 되면 성경상 일단 알고 넘어가야 해서 성경사전, 톨슨주석, ESV스터디바이블, 성경카페 등을 검색하다 보면 어느새 저는 답도 제대로 못 찾고 셋길로 빠져 있었습니다. 밥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고 여럿이 함께 먹는 밥이 맛있고 즐거운 것처럼 성경읽기도 혼자서 읽는 성경통독보다는 공동체 커뮤니티 성경읽기가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이번 성경통독학교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교회도 공동체 성경읽기가 더욱 크게 활성화되고 꾸준함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과 기대도 생겼습니다. 제가 통독한 신약성경 가운데 은혜받은 곳은 많지만 한 가지만 잠시 나누

고 싶습니다. 먼저 여러분께 작은 질문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이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수님은 죽기 직전 무엇을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23:39, 마태복음 27:44, 마가복음 15:27을 읽어보면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서는 죽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하셨던 일이 무엇이였을까요? 주님께서서는 너무도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을 하셨을 것 같지 않나요? 그 너무나 중요한 일, 전도였습니다. 십자가 양옆에 있는 강도 행악자를 천국에 이르게 하는 전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단 한 명의 영혼이라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하시는 예수님.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 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텐데 저라면 너무 억울하고 온몸이 고통스럽고 아파 전도도 뭐고

나 몰라라 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임을 느낍니다. 아니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누가복음 23:43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제가 이스라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주님 십자가 앞에서 눈물 흘렸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는 말씀이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도 있지만 성경이 솔직히 많은 부분이 이해도 잘 안 되고 정말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제 자신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인이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는 예스!! 예스 예스맨이어서 기도도 전도도 기적도 활짝 열려있는데 죄인된 저는 더 많은 간절한 기도와 회개가 필요함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

나님은 저에게 묻습니다. 선원아 너는 삶으로 드러지는 전도를 하고 있나? ‘주님 부족한 저도 예수님처럼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꼭 좀 인도해 주세요’라는 기도가 요즘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고보니 요즘 수능을 앞둔 학생 부모님들 저절로 기도 시즌입니다. 매년 뉴스를 보면 전국수학능력평가가 끝나고 전국에서 수능만점자 1등을 찾아서 기자들이 이렇게 인터뷰 하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공부해서 전국 1등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러면 조금 식상한 대답 같지만 꼭 이런 답변을 듣게 됩니다. “교과서 대로 했습니다.” 교과서? 교과서 그럼 이 땅에서 우리 믿는 자들의 교과서는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천국 가는 지름길을 확실히 찾을 수 있습니다. 저도 남은 인생 늘 성경을 가까이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애,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 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주일	1부(축제예배)	오전 09:00	지하1층 본당
	2부(축제예배)	오전 11:30	지하1층 본당
	3부(청년예배)	오후 03:00	지하1층 본당
	4부(테마예배)	오후 05: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0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09:00	지하1층 본당
주일 랜드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3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30	3층 조이랜드홀
	중·고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청년(요셉/기드온)	오후 03:00	지하1층 본당
국제 지역	영어예배	오후 02: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미얀마예배	오후 03:3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카렌족예배	오전 09:00	지하2층 블루오션홀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wch.or.kr>

2021 나와 이땅을 살릴 세이레기도회

Coming Kingdom of GOD

왕이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라

2021.11.29(월)-12.18(토)

매일저녁 8시, 토요일 오후 3시 / 본당

- 영아부에서 노년에 이르는 전교인 기도대행진입니다.
- 기도 최우선 전략으로 최우선 결단으로 함께 합니다.
- 내문제, 가정문제, 민족의 문제까지 드림으로 응답의 제전입니다.

*개근자에는 하늘의 상급이 있고, 그 명단을 영구 교회에 보존합니다.

어린이를 통한 **천국가족** 만들기

2021.11.28(주일)

장소 : 월드와이드교회 본당

1부 (오전9시) 2부(오전11시30분) : 성인 초청

3부(오후 3시) : 어린이와 온가족 초청

오시는 분들에게는
소중한 선물을
드립니다.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교회